

목포시·신안군 통합 파급효과 1조9000억 '전망'

비용 제외한 행정편익 9672억 통합 효과분석 2차 중간보고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목포대 김병록 교수는 최근 목포대에서 열린 2차 중간보고회에서 시·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9672억원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000억원,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합시 비전으로는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와 해양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전략과 상생협력과제 11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26건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합사례분석과 주민의견 조사결과, 부분별 통합효과분석, 통합시 비전과 상생협력과제 도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 설득 논리도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용역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 상생과제와 미래 비전을 담은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6년 7월1일 목포신안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서 단계별 추진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2단계로 무안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명문화 한 청주시가 청원군에 양보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목포 신안 통합 시 각종 특례를 추가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확대 운영 진도군, 주민 집중 건강관리

진도군이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취약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무의도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의료취약지 6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진들이 각 마을을 방문해 물리치료 서비스와 의료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는 의료서비스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취약지인 무의도서 1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시가지 도로변 계절 꽃 식재 무안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이 지난 11일 면사무소 입구 화단 및 도로변 화분 17개에 계절 꽃 식재를 했다.

17일 무안군 현경면에 따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에서 시가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에 심은 꽃은 팬지, 마가레트, 금어초, 루피너스 4종으로 모두 추위에 강하며 잘 자라는 관상용 꽃이다.

금어초는 로마시대부터 재배되었을 정도로 유서 깊은 화초 중 하나로, 긴 꽃대 위에 꽃이 층층이 열려 화사한 색깔로 인기가 높아 형형색색의 꽃들이 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경면은 도로변 및 화단에 조성된 계절 꽃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초 및 보식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지난 11일 무안군 현경면이 면사무소 일원 화단, 도로변 등에 17가지 계절 꽃을 식재했다. 무안군 제공

썰비치 리조트서 119안전체험 진도소방서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3일 진도 썰비치 리조트에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119안전체험장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배우고 각종 안전사고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안전교육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시책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교육담당자 소방장 최원민은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은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천조 서장은 "체험장 운영을 통해 모두가 봄철 화재예방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항상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신안군, 신규 공중보건의사 33명 배치 의료공백 최소화

의료취약지 최우선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1일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 33명(의과 인턴 11명 포함)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4개 읍·면에 근무지 배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치과 의사 8명, 한의사 8명, 인턴 의사 17명으로, 보건기관 17개소에 31명, 취약지구의 응급의료기관인 신안대우병원에

의과 인턴 1명,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한의과 1명 등 총 33명이 배치됐다.

기존의사들을 포함해 관내 총 56명(의과 23, 치과 15, 한의과 18)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없는 거제도, 흥도 등 5개소에 2명씩 의사를 각각 배치하여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흑산면, 하의면 등에 인턴을 우선 배치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여건상 고령자 및 의료사각지대가 많고, 의료인프라 부족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북부 지침을 준수하여 내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진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불금불과 댄스경연대회 연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진군은 불금불과 시즌2 행사 개장을 맞아, 20일 오후 5시 초·중·고등학생들의 꿈과 끼를 겨루는 댄스 경연대회를 병영시장 일원 불금불과 행사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금불과'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라는 뜻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요

일마다 병영시장일원(병영면 남삼인길 6)에서 강진의 대표 먹거리 병영대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별한 행사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불금불과 행사장 무대에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치러지며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부문별로 각각 금은동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총 6팀의 수상자에게는 금상의 경우 군수상과 강진사랑상품권(초등부 30만원,

중고등부 50만원), 은상과 동상의 경우 각각 교육장상과 강진사랑상품권(은상 초등부 20만원, 중고등부 30만원, 동상 초등부 10만원, 중고등부 20만원)이 수여된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 반값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다양한 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댄스 경연대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군수상과 교육장상은 물론 시상금까지 준비한 만큼, 끼가 넘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맛플무안몰' 22일 오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무안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을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맛플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지역의 60여 농가·업체가 참여해 160여개 판매상품을 구축했으며, 연중 수시로 입점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점자격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재배·생산·가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다. 입점가능 품목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교통 취약 구간 환경 개선 강진군, 지역민 안전 확보

강진군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도로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강진을 향교, 동양실업, 해양수산과학원 구간의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들은 도로가 개설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교통사고가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2건이다.

동양실업 구간은 강진역 개통과 함께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추후 교통지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강진군은 전남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해당 구간들의 정비를 요청하고, 도비 등 총사업비 7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도로교통공단 및 강진경찰서와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향교 및 동양실업 구간 2차로형, 해양수산과학원 구간 1차로형 등 총 3개의 회전교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